**쿠바선교 기도편지 2022-11**

쿠바 선교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신지요?

쿠바는 요즈음 뎅기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지난 주부터 알렉한드로 목사 역시 뎅기에 걸려서 열이 40도를 오르내렸다가 이제 내렸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지만 주의한다고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쿠바의 가난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기와 파리를 퇴치할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은 프라떼르니닫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팬데믹 사태로 교회 문이 닫혔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씩 다시 예배에 모이고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나날입니다.

**나사로 형제 이야기**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안에 기쁨이 가득해진 일을, 쿠바 선교를 위해 동역하시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자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매주 토요일은 오전에는 센터와 예배실을 청소합니다. 그리고나서, 오후에는 다소 시원한 시간에 프라떼르니닫 동네를 돌면서 심방과 전도를 합니다. 나사로 형제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실내는 어둡고, 음악은 크게 틀어져 있고, 나사로 형제는 혼자 어둠 가운데 모기가 득실거리는데 아랑 곳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바디빌딩을 전문적으로 해서 인지, 현재 병 중에 있어도 상의를 벗은 그의 몸매는 근육질로 다듬어진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파키슨 병으로 인해서 말이 어눌해 지고, 단어 하나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져 다리까지 다쳐 기동도 불편해지니 우울한 모습으로 나날을 집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렉한드로 목사와 저가 함께 가서 지난 주와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말문이 터이고, 어제는 심지어 모기 소리 마냥 입가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집을 찾아 가 그의 부부에게 전도하고 그를 시작한지 몇 해가 되었지만, 이전의 우상숭배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다가 마침내, 질병과 부상으로 거의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 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육신의 회복 뿐만 아니라 영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 예배 후에 친교 모임에서 그는 전날 불렀던 찬양을 한 번 더 성도들 앞에서 좀 더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감동이 넘쳤습니다. 찬양하는 그의 얼굴에 어린 아이 같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선교지의 한 사람이 우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출석하고 성도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도자의 큰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펠리페 형제 이야기**

아르셀리는 프라떼르니닫 교회 개척 당시부터 출석한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직업은 변호사이고 그의 남편은 펠리페입니다. 개인 전도 중에 우연찮게 만난 이 부부는 프라떼르니닫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의사, 변호사, 교수라고 해서 생활 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봉급수준이 일반 노동자들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봉급 평준화… 참 이상합니다. 수입이 비슷해서 인지 직업의 귀천이 실제 사라진 쿠바 땅입니다. 한국사람인 내게는 아르셀리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라는 것이, 그것도 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 교회에 쿠바 변호사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꽤 대단하고 자랑스러운데, 이곳 쿠바인들에게는 너나 나나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이 그렇다 보니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은 작고 사는 것도 쿠바의 다수가 그렇듯 형편없습니다. 심방을 가면 보통 짧은 상의에 물걸레질하며 집 앞 입구를 청소하고, 빨래를 늘기도 합니다. 그의 남편은 이전에 여호와 증인 집단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고 집에서 자주 성경을 혼자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경 어디를 읽고 있는지 묻고, 성경으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부인과 함께 교회에 나오기를 강권하고나서 그 집을 나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아르셀리의 남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 두 주 전에 세상에나…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저는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저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 예배를 마치고 그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친교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그에게 할애해주었습니다. 그 부부에 대한 저의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델라이다 이야기**

프라떼르니닫 교회가 달 포 전에 부임한 알렉한드로 목사를 중심으로 다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편지에서 알렉한드로 목사를 소개한 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알렉한드로는 조실 부모하고 신앙이 깊은 조부 슬하에서 성장하다가 조부마저 세상을 떠나자 고아로 신앙을 지키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그를 곁에 두고 싶어서, 아바나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까르데나스에서 개척전도하고 있는 그를, 프라떼르니닫 교회 목사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 안에서 그를 아들로 삼고, 그가 목회자의 길을 잘 걸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프라떼르니닫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를 데리고 프라떼르니닫 마을을 돌면서 이전에 출석한 가정들을 하나씩 심방하고 소개해주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델라이다 부인을 소개합니다. 프라떼르니닫 선교센터를 구입하기 전에, 아델라이다 가정에서 우리는 소 모임을 한 동안 가졌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2년 이상 선교센터에서 예배모임이 중단되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아델라이다 부인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델라이다는 평소에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쉽게 주변의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오고 있습니다. 아델라이다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프라떼르니닫 교회의 재정을 맡은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따 마르따 성경적 장로교회 방문과 교회당 마련을 위하여**

지난 선교편지에서 산따 마르따 성경적 장로교회 교회당 마련을 위하여 소식과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따 마르따 교회는 저희 쿠바교단 IPBC에 소속된 교회로서 쿠바에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산따 마르따는 쿠바의 관광명소 바라데로 비치에 인근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까를로스 목사 부부가 사택에서 수 년 전에 예배를 시작하였고, 모임이 자라가면서 산따 마르따 마을 입구 어느 집의 차고를 렌트하여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인이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배를 드리는 차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예배 장소를 옮겨야 합니다. 산따 마르따에 저렴한 마당이 딸린 집을 구입하여 사택과 예배실을 겸하고 싶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어려운 상황을 저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산이 아니라 산과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5일에 그곳 교회를 방문하고 총노회장으로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지역을 돌아보고 사택과 교회당을 겸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았습니다. 일단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산따 마르따 중앙에서 멀지 않고, 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것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용이합니다. 현재 주변의 싯가는 7만 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물은 미화 2만불입니다. 이 건물을 구입하면 우리 교단 IPBC 속에 두고, 쿠바 복음화에 길이 사용할 것입니다. 산따 마르따 교회 예배처소 마련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모든 식생활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인해 신음하는 쿠바 백성을 위해
2. 산따 마르따 성경적 장로교회 (까를로스 목사)의 예배장소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3. 프라떼르니닫 성경적 장로교회가 잘 자라고 전도일군이 배출되도록
4. 12월에 쿠바 동부 성경적 장로교회들을 방문하는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5. 12월 17일 토요일 청소년 초청 전도집회를 위하여